

## C-14. 연조직 이식(combined onlay-interpositional graft)과 골 이식술에 의한 결손부 치조제 증대술

안치현, 장문택,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조제 결손은 심한 치주 질환이나 발치시 손상, 외상, 치주 농양, 치아 파절, 구개 파열, 매식술의 실패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돌발적 외상에 의해서 치아 파절 및 치조골의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은색의 변연을 갖는 가공치나 치관장이 긴 가공치로의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치주외과적인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기존의 보철적 치료법보다 훨씬 더 심미적이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있다.

치조제 증대술에는 연조직 처치로 roll procedure, pouch procedure, interpositional graft, onlay graft, combined onlay-interpositional graft 등이 있고, 경조직 처치로 골 이식 및 골유도재생술(GBR)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치조제 결손에 대한 분류(Seibert : 1983)에 따라 치조제 결손의 양과 조건이 다르며, 이로 인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Class I 결손부에서는 회복의 요건이 간단하고, 비교적 성공적이며, Class II, III 결손부에서는 복잡하며, 연조직 처치만으로는 여러 번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증례는 Class III 결손부에서 onlay graft와 interpositional graft를 병용한 combined onlay-interpositional graft와 골 이식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